

성공하려면 닭 그림을 걸자!

서울닭문화관 특별전

2007년도 달력도 이제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이때, '연말인데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닭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던 중 서울닭문화관(관장 김초강) 홈페이지에서 연말 특집거리를 하나 찾아냈다. 바로 '성공하려면 닭 그림을 걸자' 특별전.

'성공을 하려면 닭 그림을 걸자?' 일단 특집전 주제가 단번에 기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5개월여 만에 찾아간 서울닭문화관은 여전히 1, 2층 모두 닭 천지이다. 오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걸옷 원편에 은색 닭 브로치를 달고 웃는 얼굴로 기사를 맞이하는 김초강 관장. 국화향 가득한 차 한 잔과 함께 이날 인터뷰가 시작됐다.



여러 종류의 닭 그림들

선비의 글방에 붙여진 닭 그림

이곳 1층 테마전시실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서울시 후원으로 '성공하려면 닭 그림을 걸자'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김초강 관장은 성공하려면 왜 닭 그림을 걸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풀어나간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무엇인가 해냈다' '목표에 도달했다'는 성취감 등은 '성공'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경우들이다.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는 우리 조상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성공한 삶이란 예를 들면 선비들이 대과에 급제해서 관직을 제수(除授)받고 벼슬길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닭 그림'이다.

예로부터 학문과 벼슬에 뜻을 둔 선비의 글방에는 닭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선비의 기상을 닮은 닭의 머리 위 뿔은 '벼슬'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벼슬을 따기 위해 선비들은 힘들여 공부했으며, 또한 두 눈뜨고 지켜주는 닭에게 부끄러운 선비가 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글공부에 전념해서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닭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선비들이 즐겨쓰는 문방사우(文房四友)들로 벼루 · 필통 · 붓과 붓통 그리고 문진에 이르기까지 닭그림이 그려졌거나 각인되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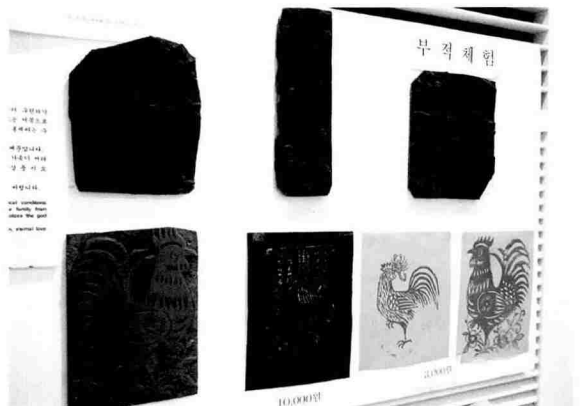
그 당시 적어도

우리 조상들한테 닭그림은 공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적 의미가 강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김초강 관장은 이런 의미에서 200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대망의 새해를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공하려면 닭그림을 걸자'라는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한다.

벽사(僻事)의 의미

김초강 관장은 이밖에도 닭그림은 예로부터 정월 초하룻날엔 액운을 막아주는 벽사(僻事)의 의미로 호랑이그림과 더불어 대문에 붙이기도



여러 종류의 부적들

했고, 부적의 의미로 집안 곳곳에 닭그림을 붙이거나 걸고 무사안일(無事安逸)한 한 해와 더불어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열두 띠 동물의 하나이자 유일하게 날개를 달아 미래마저 예지(豫知)하는 서조가 '닭'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전은 닭그림 전시 및 직접 그리기, 닭부적 찍기 등 2가지 체험문화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2층의 상설전시장에서는 조상의 문화유산인 '꼭두닭과 민화'가 전시되고 있다.

- 취재: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닭부적 찍기 체험행사

